

국문장편소설의 전고(典故) 운용 전략과 향유층의 독서문화 연구

최수현*

<차례>

1. 머리말
2. 국문장편소설의 전고의 출처와 양상
3. 범주와 빈도를 통해 살펴본 국문장편소설의 전고 운용 방식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전고의 양상과 운용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국문장편소설은 익히 알려져 있듯이 방대한 서사에 다양한 전고들을 자유자재로 배치해 활용하고 있다. 이때 활용되는 전고들은 경전(經典), 역사서, 수신서, 문학작품 등 다양한 곳에 실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문장편소설의 전고를 살펴보는 것은 당대 작품들을 향유했던 이들이 공유하고 있던 지식기반을 탐색해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 글에서는 국문장편소설에 활용되고 있는 전고의 실제와 공유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17, 18세기에 창작돼 19세기까지 꾸준히 읽힌 국문장편소설 12편을 대상으로 작품에 나타난 전고를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12편의 국문장편소설에 545개의 전고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이 기존에 밝혀졌던 경전이나 수신서, 역사서 이외에도 『세설신어』와 같은 일화집, 다양한 한시(漢詩) 작품에서 인용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운용되고 있는 전고들이 대개 2작품 이상에서 나타나

* 이 논문(저서)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5A8019795)

** 세명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고 있어 당대 향유층들이 소설을 통해 공유하고 있던 지식의 실제적인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국문장편소설이 전고를 다양하게 활용하면서도 작품에 따라 그 사용에는 편차를 보이고 있어 운용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전고 운용에 대한 작품의 관심사나 전고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작가의 지식 정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 국문장편소설,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 기봉류 국문장편소설, 전고(典故), 고사(古事), 운용, 서사 기법

1. 머리말

전고(典故)를 활용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전통적인 문학 창작의 한 방식이다. 이는 조선후기 활발히 창작되고 읽힌 국문장편소설에서도 확인되는데, 방대한 분량을 지닌 국문장편소설에는 다채로운 전고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역사적 인물과 그에 얽힌 일화뿐만 아니라 경전(經傳)이나 문학 작품의 구절을 끌어와 인물이나 상황을 묘사하거나 인물들의 행동의 논리나 준거로 전고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고의 쓰임은 국문장편소설의 서사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줄 뿐더러, 국문장편소설을 지적인 대상으로 인식되게 하며 주 독자층으로 알려져 있던 사대부 여성들에게 교양을 제공하고 학습하게 한다고 알려져 왔다.¹⁾

이처럼 전고의 활용은 작가와 독자층의 교양 수준이나 지식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전고를 자유자재로 끌어와 서사의 적재적소에 배치해 이

1)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임치균, 「대장편소설의 수신서적 성격 연구」, 『한국문화연구』 13, 2007; 장시광, 「조선 후기 대하소설과 사대부가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 29, 2007; 김문희, 「장편가문소설의 전고(典故)와 독서 역학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2010.

야기를 유려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작가가 전고의 출전이 되어주는 경전, 사상서, 역사서, 문학 작품들의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독자들은 국문장편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등장한 전고를 보며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을 재차 확인하거나 새롭게 접한 전고를 통해 지식을 축적하면서 동일한 작품을 읽는 향유층 내의 공유하는 지식을 갖게 된다.

그런데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창작과 향유가 이루어진 국문장편소설은 현재 발견되는 작품만 대략 60여 작품이 있을 정도로 그 수가 상당하다.²⁾ 이들 작품들은 가문의 번영과 자녀들의 부부 생활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담고 있는 내용의 스펙트럼은 상당히 다양하다. 부부 간의 문제에 집중한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역사 상 실존 인물을 수용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작품들이 있으며, 다양한 지식을 펼쳐보이는 데 집중한 작품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문장편소설의 향유층의 교양이나 지식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전고의 활용 역시 일률적이라고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문장편소설의 향유층이 공유했던 지식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가늠해보는 동시에 작품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전고의 활용 방식을 실증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한다.

그간 국문장편소설의 전고 활용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우선 전고의 서사적 기능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최기숙은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숙향전>과 함께 <소현성록>을 대상으로 17세기 장편소설의 서사 기법을 살펴 보면서 17세기 장편소설이 전고를 활용한 글쓰기 방식을 관례화하며, 전고의 사용을 통해 텍스트를 지적인 대상으로 인식되게 하고 있으며, 전고를 서사 세계의 미학성과 타당성 확보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음을 밝혔다.³⁾ 이후 김문희는 국

2) 조희용,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참고.

3) 최기숙(1998), 앞의 논문.

문장편소설을 대상으로 묘사의 양상과 의미를 살피면서, 외양묘사를 할 때에 전고를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두드러진다는 점⁴⁾을, 최수현은 <유씨삼대록>을 대상으로 이 작품이 특정 인물에게 전고를 집중 활용함과 전고를 통해 사건을 연출하고 있음을 밝혔다.⁵⁾

다음으로는 국문장편소설을 포함한 고전소설에 사용된 특정 고사의 활용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지연숙과 김문희는 이비(二妃) 고사⁶⁾를, 서경희는 소약란(蘇若蘭) 고사⁷⁾를, 김수연은 두우성(斗牛星) 고사⁸⁾를 중심으로 각각의 고사가 소설에서 수용되는 양상과 의미를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전고의 활용을 향유층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핀 연구가 있다. 임치균은 <소현성록>을 중심으로 국문장편소설의 수신서적인 면모를 살피면서 <소현성록>이 전범(典範)이 되는 인물들을 전고로 끌어와 반복해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주고 있음을 밝혔다.⁹⁾ 이후 장시광은 국문장편소설과 독자와의 관계를 살피면서 작품에 인용된 전고들이 주 독자층인 사대부가 여성들의 지적 취향을 만족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¹⁰⁾ 또한 김문희는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5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에 인용된 전고의 양상을 밝히고, 이러한 전고가 주 독자층

4) 김문희, 『국문장편소설의 묘사담론 연구』, 『서강인문논총』 28집, 2010; 김문희, 『고전소설의 인물묘사와 독서미감』, 『어문학』 120, 2013.

5) 최수현, 『<유씨삼대록>의 전고 활용 특징과 그 기능』, 『고소설연구』 38집, 2014.

6) 지연숙, 『고전소설 공간의 상호텍스트성: 황릉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6, 2011; 김문희, 『고전소설에 나타난 이비고사(二妃古事)의 변용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8, 2014.

7) 서경희, 『소약란 고사의 국내 수용 양상과 <소약란직금회문록>의 이본 전승 연구』, 『온지논총』 20, 2008.

8) 김수연, 『별자리 천문회소 두우성의 서사적 수용 양상과 해석의 문제』, 『시학과 언어학』 27, 2014.

9) 임치균(2007), 앞의 논문.

10) 장시광(2007), 앞의 논문.

인 사대부 여성들에게 계층적 지식과 교양을 제시하고 학습할 수 있게 한다는 점과 동일한 전고를 다양하게 사용한 것을 통해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중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점을 밝혔다.¹¹⁾

이 같은 선행연구들은 국문장편소설의 전고 활용이 서사를 보다 풍성하게 만드는데 기능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국문장편소설의 창작방법을 미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였으며, 국문장편소설의 전고 활용이 독자들에게 지적 교양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국문장편소설의 향유층의 성격을 심도 깊게 살펴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는 국문장편소설의 전고 활용에 대해 살피면서도 그 대상을 주로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로 삼아 이루어져 왔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문장편소설은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 이외에도 다수의 작품들이 존재한다. 최근 들어 국문장편소설의 향유층이 주 독자층이었던 사대부가 여성들뿐만 아니라 아래로의 확산이 이루어졌다는 연구들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국문장편소설 안에서도 다양한 성향의 작품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문장편소설의 전고 활용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도 보다 폭넓은 작품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양상을 실증적으로 조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전고 양상을 살핀 선행연구에서는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 5작품을 대상으로 두 작품 이상에 공통적으로 쓰이거나 한 작품 내에서 여러 번 쓰이는 전고를 추출해 소개하였는데¹²⁾, 추출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누락된 전고들이 있어 총 139개의 전고를 소개하였다. 국문장편소설에 사용된 전고를 통해 향유층이 공유하였던 지식의 정도를 포괄적이지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이 글에서는 삼대륙계 국문장편

11) 김문희, 앞의 논문.

12) 김문희, 앞의 논문.

소설 7작품과 기봉류 국문장편소설 5작품을 대상¹³⁾으로 국문장편소설의 전고 양상과 운용 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¹⁴⁾ 기봉류 국문장편소설을 함께 살피고자 한 이유는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뿐만 아니라 국문장편소설이 보다 폭넓게 공유하고 있는 전고를 살펴보는 동시에 작품 별 다채로운 전고 운용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기봉류 국문장편소설은 대략 18세기에 창작이 이루어져 19세기까지 향유가 널리 이루어진 작품으로, 이들 작품들은 기봉류라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나 문학작품의 차용이 두드러진 작품들이어서 국문장편소설의 다양한 전고 활용을 포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국문장편소설에 활용된 전고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 국문장편소설의 작가와 향유층이 공유했던 지식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가늠해보고, 국문장편소설 내에서 전고 운용의 다양한 방식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2. 국문장편소설의 전고의 출처와 양상

1) 국문장편소설의 전고의 출전 문헌

국문장편소설이 무수히 많은 전고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전고의 출전이 되는 텍스트들 역시 다양하다. 그런데 전고의 출전을 확인하는 것은 이를 활용한 작가와 공유한 독자들이 지녔던 지식의 범주를 구성해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요한다. 대개 국문장편소설에서 사용되는 전고는 인

13)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유씨삼대록>, <성현공숙렬기>, <임씨삼대록>, <현몽쌍룡기>, <조씨삼대록>, <옥원재합기연>, <명주기봉>, <쌍천기봉>, <이씨세대록>, <창란호연록>으로 총 12작품이다.

14) 국문장편소설 12작품을 통해 국문장편소설 전고를 조망해보고자 하는 이 글에서 추출한 전고는 총 545개이며, 이 중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서 추출한 전고는 총 464개이다.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물과 그에 얽힌 일을 다룬 전고, 사물과 그에 얽힌 일을 다룬 전고, 경전이나 문학작품의 구절들을 인용한 전고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중 경전이나 문학작품의 구절들은 인물들의 대화 상황에서 대다수 한자음을 그대로 작품 안에서 노출 시키면서 인용되고 있어 출전이 되는 작품의 내용과 맥락을 알지 못하면 소설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인물이나 사물에 얽힌 전고들뿐만 아니라 경전이나 문학작품의 구절들이 수시로 인용되고 있는 국문장편소설을 향유했던 이들은 작품 속에 전고로 빈번히 등장하는 경전이나 문학작품의 내용들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에서는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임씨삼대록>, <현몽쌍룡기>, <조씨삼대록>을 대상으로 국문장편소설의 전고의 활용을 살펴면서 전고의 원 텍스트가 된 문헌들을 밝혀주었다. 여기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문헌들을 정리한 후, 이 글에서 추가로 밝힌 문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선행연구에서는 국문장편소설의 전고의 원 텍스트가 되는 문헌들을 경전류 및 사상사류, 역사서류, 수신서 및 교양서류, 문학류로 나누어 살펴주었는데, 경전류 및 사상사류로는 『논어』, 『맹자』, 『소학』, 『시경』, 『서경』, 『주역』, 『의례』, 『예기』, 『춘추좌씨전』, 『열자』, 『도덕경』이, 역사서류로는 『사기(史記)』, 『십팔사략(十八史略)』, 『후한서(後漢書)』, 『진서(晉書)』, 『촉지(蜀誌)』가, 수신서 및 교양서류로는 『열녀전』, 『내훈』, 『명심보감』, 『동몽선습』, 『한비자(韓非子)』, 『전국책(戰國策)』, 『열선전(列仙傳)』, 『신서(新序)』가, 문학류로는 『전기(傳奇)』, 『태평광기』, 『요재지이』, 『전등여화』, 『서상기』, 『평요전』, 『구운몽』이 활용되었음을 밝혔다.¹⁵⁾

이 글에서 추가로 발견한 국문장편소설에 사용된 전고들의 원 텍스트가 되어주는 문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경전류에서는 『중

15) 김문희, 위의 논문, 205~206쪽.

용(中庸)』이 있으며 사상서 가운데에는 도가의 사상을 담고 있는 『장자(莊子)』, 『열자(列子)』, 도교의 수양법을 다루고 있는 『황정경(黃庭經)』과 법가의 사상을 담고 있는 『관자(管子)』, 제자백가의 학설을 다양하게 엮은 『회남자(淮南子)』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 국문장편소설의 전고로 인용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동용 한문 학습서라고 할 수 있는 『학어집(學語集)』에 실린 내용들도 전고로 인용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들은 전고로 국문장편소설 안에 들어오면서 인물들의 삶의 준거로 활용돼 국문장편소설의 서사의 깊이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전고들은 대다수가 한자음을 그대로 표기한 문구의 형태로 인용되고 있어 향유층의 문식력을 가늠하게 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어주었다.

또한 다양한 시기의 역사적 인물들과 그에 얽힌 일화들이 인용되면서 국문장편소설의 전고로 활용되는데, 이러한 전고들의 출전이 되는 텍스트로는 역사서류가 있다. 진(晉)·초(楚)를 비롯한 제후(諸侯)의 여덟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좌구명(左丘明)의 『국어(國語)』와 주(周) 위열왕(威烈王)부터 후주(後周)의 세종(世宗)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다룬 『통감(通鑑)』을 비롯해 『당서(唐書)』, 『송사(宋史)』, 『명사(明史)』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 국문장편소설의 전고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문장편소설은 유명한 문학 작품들의 인물이나 구절(句節)을 끌어와 작품의 인물이나 상황들을 빗대기도 하고 인물들로 하여금 음영(吟詠)하도록 하면서 전고로 활용한다. 제(齊)·양(梁)의 대표적인 시문을 모은 소통(蕭統)의 『문선(文選)』이나 조선 중기 문신인 김인후[金麟厚, 1510~1560]가 엮은 한시 입문서인 『백련초해(百聯抄解)』에 실린 시부(詩賦)의 구절들이 국문장편소설에 전고로 들어오고 있으며, 구체적인 작품들로는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歸去來辭)>, 조식(曹植)의 <낙신부(洛神賦)>, 소식(蘇軾)의 <적벽부(赤壁

賦)〉, 백거이(白居易)의 〈장한가(長恨歌)〉, 양형(楊炯)의 〈종군행(從軍行)〉, 제갈량(諸葛亮)의 〈양보음(梁甫吟)〉의 시구들이 전고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명문(名文)으로 알려진 왕희지(王羲之)의 〈난정집서(蘭亭集序)〉와 진종(眞宗)의 〈권학문(勸學文)〉, 한유(韓愈)의 〈악어문(鰐魚文)〉의 일부 내용들도 국문장편소설의 전고로 들어오고 있었다. 또한 소설 작품으로는 육조시대의 지괴소설집(志怪小說集)인 『수신기(搜神記)』, 당대(唐代) 원진(元稹)의 〈앵앵전(鶯鶯傳)〉, 원대의 희극인 〈조씨고아(趙氏孤兒)〉, 명나라 초기 잡극인 〈교홍기(嬌紅記)〉의 인물과 사건들이 국문장편소설의 전고로 인용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국문장편소설은 위진남북조시대 남조 송나라 유의경(劉義慶)이 편찬한 지인소설집(志人小說集)인 『세설신어(世說新語)』에 실려 있는 내용들도 전고로 활용하고 있다. 한위(漢魏)에서 동진(東晉)에 이르는 시대의 사림(士林), 관환(官宦), 명류(名流) 등의 일사(逸事) 및 언담을 모아 엮은 『세설신어(世說新語)』¹⁶⁾는 고려시대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꾸준히 읽혔던 책으로 알려져 있다.¹⁷⁾ 이러한 인기는 국문장편소설의 전고 활용에서도 확인되는데, 잘 생긴 남성을 비유할 때 동원되는 반악(潘岳)의 외모에 얽힌 이야기, 남녀의 자유로운 애정을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온태진(溫太眞)이 옥경대(玉鏡臺)를 예물로 내놓은 이야기나 한수(韓壽)가 가충의 딸과 혼인하게 된 이야기 등이 작품에 실린 대략 70여 개의 일화들이 국문장편소설의 전고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었다.

16) 윤세순, 「17세기, 간행본 서사류의 존재양상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 38, 2008, 151쪽.

17) 김장환, 「『세설신어』의 국내 유전상황과 연구개황」, 『동방학지』 104집, 1999, 359~376쪽 참조.

2) 국문장편소설의 전고의 양상

국문장편소설은 앞서 살펴본 경전, 역사서, 사상서, 수신서, 교양서, 문학 작품들에 실린 내용을 다채롭게 끌어와 전고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그 양상 역시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국문장편소설에 사용된 전고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을 통해 국문장편소설 향유층이 공유했던 교양과 지식의 정도를 가늠해보기 위해 사용된 전고의 작품 내 의미와 실제 전고의 양상을 개괄하고자 한다.

전고의 양상은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 5작품을 대상으로 전고의 활용 양상을 살핀 선행연구¹⁸⁾에서 그 양상을 정리할 때 사용하였던 내용상의 범주를 바탕으로 하되, 범주와 항목을 세분화 해 다시 분류하였다. 우선 선행연구에서는 전고를 ‘여성·부인과 관련된 전고, 남녀 혼인 및 애정과 관련된 전고, 부모·형제의 윤리와 가정사와 관련된 전고, 군신·치국과 관련된 전고, 남성의 외모·재주와 관련된 전고, 선인의 고난과 관련된 전고, 행동 규범과 관련된 전고’로 7개로 범주화 하였다. 또한 각각의 범주는 다시 전고의 의미에 따라 세분화하였는데, ‘여성·부인과 관련된 전고’는 ‘여성부인의 부덕과 내조, 추녀의 부덕, 여성의 절개, 덕 있는 계모, 부인의 행동규범, 투악한 여성, 음탕한 여성, 미녀를 비유하는 상황, 문재의 여성, 박대당하는 여성, 조강지처에 대한 대우’로 나누었다. ‘남녀 혼인 및 애정과 관련된 전고’는 ‘남녀의 자유로운 애정을 합리화하는 상황, 남녀의 사랑 묘사, 여자의 개가 합리화, 부부의 화락, 부부의 불화, 여자가 혼인할 시기, 사위를 맺는 일, 혼인’으로 나누었다. ‘부모·형제의 윤리와 가정사와 관련된 전고’는 ‘효자, 효녀, 불초한 아들과 어질지 못한 아버지, 악한 형제를 죽여야 하는 상황, 현명한 아버지의 태도,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18) 김문희, 앞의 논문.

나누었다. ‘군신·치국과 관련된 전고’는 ‘모범적인 임금, 경계해야할 임금, 인재를 구하는 태도, 임금의 검소한 태도, 임금에 대한 충, 엄격한 법치, 잘 다스려진 나라, 충신 직간신, 지략 있는 신하, 장군의 빼어난 계략’으로 나누었다. ‘남성의 외모·재주와 관련된 전고’는 ‘미남을 비유하는 상황, 빼어난 외모 귀중한 존재, 빼어난 문제나 재주, 활솜씨’로 나누었다. ‘선인의 고난과 관련된 전고’는 ‘선인의 고난 상황, 선인의 억울한 상황’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행동 규범과 관련된 전고’는 ‘예의 중요성, 인내의 중요성, 천명의 정당성, 악인의 개과천선’으로 나누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전고의 범주를 8개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범주 중에서 ‘군신·치국과 관련된 전고’와 ‘행동 규범과 관련된 전고’는 수용하였고, ‘성인 학자와 관련된 전고’와 ‘물명 관련된 전고’, ‘경전 및 문학작품의 기타 전거와 관련된 전고’는 새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여성·부인과 관련된 전고’는 ‘여성과 관련된 전고’로, ‘남녀 혼인 및 애정과 관련된 전고’와 ‘부모·형제의 윤리와 가정사와 관련된 전고’는 합쳐서 ‘혼인 및 가정사와 관련된 전고’로, ‘남성의 외모·재주와 관련된 전고’는 ‘남성의 외모 재주 성품과 관련된 전고’로 재설정하였다.

전고의 의미에 따른 세부 항목도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를 수용하면서도 새로 설정하였다. 우선 범주를 그대로 수용하였던 ‘군신·치국과 관련된 전고’는 ‘모범적인 임금’을 ‘모범적인 임금, 명철한 군주’로, ‘충신 직간신’과 ‘임금에 대한 충’은 ‘충신, 직신, 충성’으로, ‘지략 있는 신하’와 ‘장군의 빼어난 계략’은 ‘지략, 병법’으로 재설정하고, ‘나라 다스리는 태도’, ‘재상’, ‘간신, 불충, 권력 영합’, ‘장수’, ‘은거 한가로움’, ‘포로’를 새로 설정하였다. 또한 ‘행동 규범과 관련된 전고’는 ‘예의 중요성’을 ‘예의 중요성, 바른 행동’으로 재설정하고, ‘배움 태도 스승 흠모’, ‘잘못 인정’, ‘은혜 갚음’을 새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새로 범주를 설정한 부분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겠다. ‘성인 학자와 관련된 전고’는 ‘성인, 현인, 학자’, ‘도학자’로 나누었고, ‘물명 관련된 전고’는 ‘무거운 술, 보물’, ‘위기 해결’, ‘귀중한 것’, ‘약’으로, ‘경전 및 문학작품의 기타 전거와 관련된 전고’는 각각 등장 전고의 의미에 따라 세부 항목을 새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관련된 전고’는 기존의 것을 수용하고, ‘신선’, ‘필법’, ‘시비’를 새로 설정하였다. ‘혼인 및 가정사와 관련된 전고’는 기존의 것을 활용하면서 ‘부부의 공손함’, ‘부모 자식 간 규범 및 행동’, ‘부친을 닮은 아들’, ‘가장의 어려움’, ‘자식 번성’, ‘아들 낳음’, ‘양자 들임’, ‘자식 걱정’을 새로 설정하였다. ‘남성의 외모 재주 성품과 관련된 전고’는 기존의 세부 항목을 수용하면서 ‘재주’, ‘필법’, ‘총명’, ‘어리석음’, ‘용력’, ‘성품’, ‘악기’, ‘의술’, ‘부호’, ‘자객’, ‘역술’, ‘화가’, ‘친구’를 새로 설정하였다.

〈여성과 관련된 전고〉

의미	전고의 양상
부덕 내조	각결(却缺): 임/ 갈담(葛覃): 소 유 임 현 조/ 관저(關雎): 소 성 유 임 현 조 명 쌍 이/ 규목(樛木): 소 유 임 현 조 이/ 마등(馬鄧): 소 임 조 옥 명/ 번희(樊姬): 소 임 조 명 쌍 이/ 봉영집옥(奉盈執玉): 유 현 조/ 비동방지명(匪東方則明) 월출지광(月出之光) 비계즉명(匪鷄則鳴) 창승지성(蒼蠅之聲): 성*/ 아황(娥皇) 여영(女英) 태입(太妊) 태사(太姒):: 소 유 효 유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창/ 장손황후(長孫皇后): 소 조/ 주선강후(周宣姜后): 소 성 임 현 조 명 이/ 주아(周雅)의 풍모: 소 유 임 조/ 진희(晉姬): 유 성 임/ 태강(太康): 소 현/ 행채(荇菜): 유 현 조/ 환소군(桓少君): 옥
추녀의 부덕	맹광(孟光): 소 유 효 유 성 임 현 조 옥 명 쌍/ 무염(無鹽): 소 임 현 조 옥 명 쌍 이/ 숙류(宿瘤): 소/ 황아추(黃阿醜): 성 임 현 조 명
절개	공강(共姜): 유 임 옥 명/ 난지(蘭芝): 옥/ 도미(都彌)의 아내: 소*/ 반소(班昭): 유 효 유 현 조 옥 명 쌍 이/ 백영(伯嬴): 소*/ 백희(伯姬): 소 유 성 임 현 조 옥 명 이 창/ 악양자(樂羊子)의 처: 소/ 여종(女宗): 소 유 효 현 조 옥/ 영녀(令女): 옥*/ 월희(越姬): 소 쌍 이/ 추결부(秋潔婦): 소 임 명 이/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 유 효 임 옥
계모의 덕	목강(穆姜): 소 성 현 조 옥 명 쌍
교육어머니	경강(敬姜): 현 조 옥/ 맹모(孟母): 소 성 현 조 옥 명/ 읍강(邑姜): 옥

음탕	가후(賈后): 유*/ 달기(妲己): 소 유 성 임 조 명 이 / 매희(妹喜): 소 유 임 현 조 명 / 문강(文姜): 성 성고고, 호영아: 임/ 앵앵(鶯鶯): 성
투약	독고녀(獨孤女): 성/ 여후(呂后) 인체(人屍): 소 유 임 현 조 옥 명 창/ 여희(驪姬): 소 유 현/ 위징(魏徵)의 처: 소 유 임 조 쌍 창/ 진황후(陳皇后) 장문궁(長門宮): 소 유/ 측천무후(則天武后): 소 유 성 임 현 조 명 이
미녀	가운화(賈雲華): 유/ 경국지색(傾國之色): 유 현 조 쌍 이 창/ 녹주(綠珠): 임/ 당제지화(唐棣之華): 임 조/ 대교(大橋) 소교(小橋): 유효/ 동가녀(東家女): 임 현 조 쌍 이/ 모장(毛嬙): 소 임/ 미목변혜(美目盼兮) 교소천혜(巧笑倩兮): 임 조/ 복비(宓妃): 소 조 옥 명 이/ 서시(西施): 소 유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창/ 서중옥녀(書中玉女): 소 임 조/ 선강(宣姜): 성*/ 양귀비(楊貴妃): 소 유 성 임 조 옥 명 쌍 이 창/ 여와(女媧): 임 현 조 옥 명 쌍 이/ 여희(驪姬): 유/ 왕소군(王昭君): 소 유 성 조 옥 이/ 우미인(虞美人): 소 조 쌍/ 이화일지춘대우(梨花一枝春帶雨): 임*/ 장강(莊姜): 소 임/ 장여화(張麗華): 명*/ 조비연(趙飛燕): 소 유 임 조 옥 명 쌍 이/ 초요(楚腰): 유효 성 임 쌍 창/ 침어낙안지용(侵魚落雁之容): 소 현 유 이/ 폐월수화지태(蔽月羞花之態): 소 유 현 조 이/ 포사(褒姒): 유 임/ 한무제의 후궁 윤부인(尹夫人) 이부인(李夫人): 소*/ 향아(姮娥): 명 쌍 이 창 소 유 임 현 조
신선	강비(江妃): 옥 / 구천현녀(九天玄女): 소 유 임 옥 쌍 / 위부인: 임
박대당한 여성	반첩여(班婕妤) 장신궁(長信宮): 소 유효 유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창/ 오기(吳起)의 처: 소 현 조 옥 명/ 장강(莊姜): 유 성 현 조 옥 쌍/ 장문궁(長門宮) 진아교(陳阿嬌): 소 유효 유 성 임 이/ 탁문군(卓文君) 백두음(白頭吟): 소 유효 유 성 임 현 조 명 쌍 이 창
여성의 행동규범	백리의외(百里外) 불분상(不奔喪): 소 유 임 옥 쌍 이/ 부인(婦人) 복어인(伏於人): 소 조 창/ 삼년상불거(三年喪不去) 유자식불거(有子息不去): 소 이/ 삼종지도(三從之道): 소 조 쌍 이/ 여자유행(女子有行) 원부모형제(遠父母兄弟): 소 유 현 조 옥 이 창/ 유소취무소귀(有所取無所歸): 유효*/ 필경필계(必敬必誠): 조*/ 형우과처(刑于寡妻): 옥*
문재	사도온(謝道韞) 영설지재(詠雪之才): 소 유효 유 임 조 옥 쌍 이/ 소약탄(蘇若蘭): 소 임 조 옥 명 이/ 채문희(蔡文姬): 창*
조강지처	송홍(宋弘) 조강지처불하당(糟糠之妻不下堂): 소 유 현 조 명 쌍 이 창/ 적녀(翟女): 유*
필법	위부인(衛夫人): 유*
시비	홍랑(紅娘): 임*

〈혼인 및 가정사와 관련된 전고〉

의미	전고의 양상
남녀의 자유로운 애정	건삼성진(襄裳涉溱): 유 성 임/ 관저(關雎) 하주숙녀(河洲淑女): 소 성 유 임 현 조 옥 이/ 교랑(嬌娘): 소 성/ 사마상여(司馬相如) 탁문군(卓文君): 소 성 임 조/

	상림(桑林): 소 유 성 조 / 한수(韓壽): 유 성 임 이
남녀 사랑묘사	남교(藍橋)의 숙녀: 성 임 현 조 쌍 이 / 무산(巫山) 초대(楚臺) 양왕(襄王) 요지(瑤池): 소 유효 유 성 임 현 조 옥 쌍 이 창
여자 개가 합리화	공자(孔子) 머느리의 개가: 창 / 진평(陳平) 아내의 다섯 번 개가: 소 유효 유 임 / 탁문군(卓文君)의 개가: 소 임 현 조
부부의 화락	관저지락(關雎之樂): 소 현 조 옥 이 / 연리지(連理枝) 비익조(比翼鳥): 소 유효 유 임 조 옥 이 창 / 종고지락(鐘鼓之樂): 유 성 옥 / 진루(秦樓)의 봉소(鳳簫): 임 이
부부의 공손함	각결(郤缺): 임 옥
부부의 불화	왕조(王藻): 조* / 종풍차포(終風且暴): 유 성 임
여자 혼인시기	도요(桃夭) 도지작작(桃之灼灼): 소 유 임 현 조 옥
사위 맞는 일	동상(東牀): 소 유 현 조 옥 명 쌍 이 창 / 작병(雀屏)의 맞힘: 유
혼인	백양구귀(百兩于歸): 소 유 임 현 조 옥 명 쌍 이 창 / 봉지(鳳池): 소 / 온태진(溫太眞)의 옥경대(玉鏡臺): 쌍 이 / 주진호연(朱陳好緣): 소 유 현 조 명 이 / 진진호연(秦晉好緣): 소 옥 창
효자	곽거(郭巨): 소 현/ 노래자(老萊子): 유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창 / 망운지회(望雲之懷): 임 옥 / 민자건(閔子騫): 소 유효 성 임 조 옥 명/ 민천호읍(旻天號泣): 유효 백어(伯魚): 유효 성/ 명지경의(餅之罄矣): 옥* 부혜생아(父兮生我) 모혜옥어(母兮鞠我): 명 창 / 소련(少連) 대련(大連): 유효 조/ 악정자춘(樂正子春): 소 유효 성 임 조 명 창 / 왕상(王祥): 소 유효 성 임 현 조 명 / 요료자아(蓼蓼莪) 비아이 호(匪莪伊蒿): 옥* / 유검루(庾黔婁): 옥 / 육적(陸績)의 회굴(懷橘): 유효* / 자공(子貢): 유* / 자로(子路) 부미(負米): 소 유효 성 조 옥 명 쌍 / 주수창(朱壽昌): 성* / 증삼(曾參): 소 유 성 임 현 조 옥 이 / 증증예불격간(蒸蒸乂不格姦): 유효 성 조 / 진명제(晉明帝): 옥 / 진정표(陳情表): 조 명 / 황향(黃香) 선침(扇枕): 소 유효 유 성 임 조 옥
효녀	목란(木蘭): 소 성 임 조 옥 명 창 / 제영(緹縈): 소 현 조 옥 명 이 창 / 조아(曹娥): 소 현 조 명 / 진효부(陳孝婦): 소 성 조 옥 명
부모 자식 간 규범 및 행동	계초명(鷄初鳴) 함관줄쇄(咸罔櫛縱): 옥*/ 남풍시(南風詩): 유 현 조/ 부모의 허물을 간하다[父母有過 諫而不逆]: 유효*/ 부위자은(父爲子隱) 자위부은(子爲父隱): 유효/ 삼간불청(三諫不聽) 수이호지(隨而號之): 옥*/ 소장즉수(小杖則受) 대장즉주(大杖則走): 성*/ 신체발부(身體髮膚) 수지부모(受之父母) 훼손멸성(毀不滅性) 예지시어(禮之始也): 소 명 쌍/ 지자(知子) 막어부(莫如父): 유 성 임 조 쌍 이/ 적피장혜(陟彼敝兮) 첨망불급(瞻望不及): 성 임/ 적호(陟岵): 성 옥/ 천하(天下) 무불시저부모(無不是底父母): 현 조
부친 닮은 아들	백어(伯魚): 임
불초한 아들, 어질지 못한 아버지	순(舜)의 아들 상균(商均): 소 현 조 / 순(舜)의 아버지 고수(瞽瞍): 소 유효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창 / 오사(伍奢): 소* /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 소 유 현 조

좋지 못한 형제	건성(建成): 현 조/ 관숙(管叔) 채숙(蔡叔): 소 유 성 임 현 조/ 상(象): 임 조 명/ 원길(元吉): 현 조
형제 우애	나룻 그늘림: 유효 임 / 분재(分財)할 적 공동한 나무가 죽음: 소* / 사마광(司馬光): 성* / 상채(常棣)의 정(情): 옥 / 우중(虞仲) 태백(太伯): 유효 성 임
가족을 잃은 슬픔	고분지탄(鼓盆之歎): 유 임 / 귀래망사대(歸來望思臺): 성 / 붕성지통(崩城之痛): 현* / 상명지탄(喪明之嘆): 유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창 / 서하지탄(西河之歎): 소 유 임 현 조 옥 쌍 이 창 / 육아지통(蓼莪之痛): 소 임 현 조 창 / 종천극통(終天極痛): 현 쌍 이 / 층봉지탄(層峰之嘆): 임*
가장의 어려움	가옹(家翁): 성 임
자식 번성	곽분양(郭汾陽): 소 유 성 임 조 옥 명 이 창 / 사가(謝家)의 보수(寶樹): 소 유효 / 순씨팔룡(荀氏八龍): 소 임 / 장가(張家)의 구세(九世): 소 조
아들 낳음	농장지경(弄璋之慶): 임 조 쌍 이 창
양자 들임	명령(螟蛉): 유효*
자식 걱정	수즉다욕(壽則多辱) 다남자즉다구(多男子則多懼): 조

〈군신 치국과 관련된 전고〉

의미	전고의 양상
모범적인 임금 명철한 군주	강왕(康王): 현* / 광무제(光武帝): 소 유 / 남산수(南山壽): 유 현 조 옥 쌍 / 당고조(唐高祖): 성* / 당태종(唐太宗): 소 임 현 조 옥 명 쌍 / 무왕(武王): 소 유효 임 조 옥 명 쌍 이 / 문왕(文王): 소 유효 유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 망어적미(魴魚鱗尾) 왕실여휼(王室如燬): 임* / 선왕(宣王): 임* / 성왕(成王): 현 옥 / 소제(昭帝): 조 / 요순(堯舜): 소 유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창 / 우탕(禹湯): 소 유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창 / 유선(劉禪): 현 / 주수구망(周雖舊邦, 기명유신(其命維新): 옥 / 한문제(漢文帝): 옥 / 한소제(漢昭帝): 유효 유
경계할 임금	결왕(桀王) 주왕(紂王): 소 유 조 옥 명 쌍 / 당현종(唐玄宗): 옥 창 / 수양제(隋煬帝) 양광(楊廣): 유효 명 / 한무제(漢武帝): 소 옥 쌍
임금의 겹소	탕왕(湯王)의 육사자책우상림(六事自責于桑林): 임 조 / 토계삼등(土階三等) 모자부전(茅茨不剪): 임 조 옥 명
인재 구함 천거	누사덕(婁師德): 명* / 삼고초려(三顧草廬): 유효 유 조 / 서서(徐庶): 성 조 / 신릉군(信陵君): 옥 명 / 진번(陳蕃): 유 임 이 / 토포악발(吐哺握發): 유효 현 조 창
엄격한 법치	약법삼장(約法三章): 유효 유 현 조 옥 명 쌍 이
나라 다스리는 태도	군부득이신(君不得而臣) 부부득이자(父不得而子): 성* / 사유백행(四維百行): 현* / 사유부장(四維不張) 국내멸망(國乃滅亡): 유효* / 지신(知臣) 막여주(莫如主): 조 쌍 / 천자목목(天子穆穆) 제후황황(諸侯皇皇): 성* / 하우(夏禹)의 과가문불입(過家門不入): 현 조
잘 다스려진 나라	강구(康衢): 소 유효 임 / 군자지덕이 바람이요 소인지덕이 풀이라: 옥* / 도불습유(道不拾遺): 유 성 현 / 망지어운(望之如雲) 취지어일(就之如日): 조

<p>충신 직신 충성</p>	<p>개자추(介子推): 소 임 현 옥 명 / 군육신사(君辱臣死): 조* / 굴원(屈原): 소 유효 유 성 현 옥 명 쌍 창 / 급압(汲黯): 소 유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 기신(紀信): 성 현 조 / 기자(箕子): 현 옥 / 김일제(金日磾): 성 / 동선(董宣): 소* / 문천상(文 天祥): 성 임 명 / 미자(微子): 소 유효 조 옥 명 / 백이(伯夷) 숙제(叔齊): 소 유효 유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창 명 쌍 / 보천지하(普天之下) 막비왕토(莫非王土) 솔토지민(率土之濱) 막비왕신(莫非王臣): 소 유 임 현 조 / 비간(比干): 소 유효 유 현 옥 명 / 사마의(司馬懿): 성 임 조 옥 명 / 세한(歲寒): 옥 / 소무(蘇武): 유 성 조 옥 쌍 / 왕촉(王燭): 옥 / 용방(龍逢): 소 현 옥 / 임사불역사(臨死不易辭) 신야(信也) 위신불사군(爲臣不欺君) 정야(貞也): 성* / 장건(長鬻): 임* / 주공(周 公): 소 유효 유 성 임 현 조 옥 명 이 / 직설(稷挈): 소 유효 조 옥 / 충즉진명(忠則 盡命) 효당갈력(孝當竭力): 이*</p>
<p>제상</p>	<p>공손홍(公孫弘): 옥 명 창 / 광광(霍光): 소 조 옥 명 쌍 이 / 구준(寇準): 성* / 동중서(董仲舒): 옥 / 문언박(文彦博): 임* / 미축(糜竺): 옥 / 백리해(百里奚): 옥 / 범질(范質): 옥 / 부열(傅說): 성 임 옥 쌍 창 / 상양(商鞅): 유효* / 소하(蕭何): 유 현 조 옥 명 쌍 이 / 여불위(呂不韋): 현 / 오자서(伍子胥): 옥 / 왕형공(王荊公): 성 / 위징(魏徵): 소 유효 유 성 임 조 옥 명 쌍 이 / 이윤(伊尹): 소 유 임 현 조 옥 쌍 이 / 정자산(鄭子產): 옥 / 춘신군(春申君): 성* / 풍도(馮道): 옥</p>
<p>간신, 불충 권력 연합</p>	<p>가사도(賈似道): 명* / 강충(江充): 이* / 등탁(董卓): 소 현 명 이 / 사흉(四凶): 유 임 조 명 / 소정묘(少正卯): 성 현 조 / 양국충(楊國忠): 명* / 양화(陽貨): 소 유 / 역야(易牙): 옥 / 왕칙(王則): 임 / 이릉(李陵): 유 성 명 / 이임보(李林甫): 유 임 명 이 / 조고(趙高): 성 명 / 조무상(曹無傷): 소 유효 임 명 / 제경(蔡京): 유효*</p>
<p>지략 병법</p>	<p>강유(姜維): 쌍 / 광가(郭嘉): 소* / 광봉효(郭奉孝): 성* / 괴철(蒯徹): 성* / 방언 (龐涓): 소 현 명 / 방통(龐統): 유 임 쌍 / 범증(范增): 소 성 명 / 사마양제(司馬穰 苴): 성 임 현 조 / 소진(蘇秦): 소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창 / 손무(孫武): 소 유 성 임 현 조 옥 명 / 손빈(孫臏): 소 옥 이 / 운주유악(運籌帷幄) 결승천리지재 (決勝千里之才): 성 임 현 조 쌍 이 / 육백언(陸伯言): 소 임 조 / 장구령(張九齡): 명* / 장량(張良): 소 유효 유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 장의(張儀): 소 유 성 임 현 조 옥 쌍 이 창 / 제갈근(諸葛瑾): 쌍 / 제갈량(諸葛亮) 와룡선생(臥龍先生) 칠종칠금(七縱七擒): 소 유효 유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창 / 조참(曹參): 유 성 현 조 / 진평(陳平): 소 유효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창 / 태공망(太公望): 소 유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 풍환(馮驩): 옥*</p>
<p>장수</p>	<p>경포(鄒布): 소* / 관우(關羽): 옥 창 / 노숙(魯肅): 옥* / 두계량(杜季良): 유효* / 마대(馬岱): 쌍 / 마맹기(馬孟起): 성 쌍 / 마무(馬武): 성 / 마숙(馬謖): 쌍 / 마완(馬琯): 성 임 / 마원(馬援): 명 / 백기(白起): 옥* / 번괘(樊噲): 조* / 손권(孫 權): 성 쌍 / 악의(樂毅): 소 옥 명 / 여몽(呂蒙): 현* / 여포(呂布): 창* / 염파(廉 頗): 소 성 임 옥 명 창 / 오기(吳起): 소 유효 유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 왕릉(王 陵): 옥 / 왕망(王莽): 소 성 현 조 명 이 / 왕십(王尋): 성* / 왕읍(王邑): 성* / 왕평(王平): 쌍 / 위청(衛青): 성* / 유비(劉備): 유효 유 성 임 조 / 육손(陸遜): 명* / 유월석(劉越石): 유* / 위연(魏延): 쌍 / 이광(李廣): 옥 / 이목(李牧): 소 성 / 익덕(翼德) 장비(張飛): 옥 창 / 장순(張巡): 옥* / 정장(亭長): 명 / 조자룡(趙</p>

	子龍: 소 유 성 / 조적(祖逖): 유* / 조조(曹操): 소 유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 조참(曹參): 옥 쌍 / 주발(周勃): 성* / 주아부(周亞夫) 세류영(細柳營): 소 유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 주유(周瑜): 소 유 효 유 성 현 조 옥 명 / 주창(周昌): 소* / 팽월(彭越): 소 유 성 명 이 / 하후영(夏侯嬰): 현 /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 소 유 효 유 조 / 한신(韓信) 회음후(淮陰侯): 소 유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 항우(項羽): 소 유 성 조 옥 명 쌍 창 / 황개(黃蓋): 쌍 / 황충(黃忠): 명*
은거 한가로움	검누(黔廬): 유 효* / 노중련(魯仲連): 유 효 성 옥 쌍 / 문수설이상관(門雖設而常關): 조 / 사호삼은(四皓三隱): 성 임 / 사마휘(司馬徽): 쌍 / 소부(巢父) 허유(許由) 기산(箕山) 영수(潁水): 소 유 효 유 성 임 조 명 쌍 이 창 / 양보음(梁甫吟): 소 / 엄자릉(嚴子陵): 유 성 임 / 왕이보(王夷甫): 임*
포로	초수(楚囚): 유 효 성 임 현 조 쌍

〈성인 학자와 관련된 전고〉

의미	전고의 양상
성인 현인 학자	강한이택지(江漢以濯之) 추양이폭지(秋陽以暴之): 성* / 공명선(公明宣): 유 효* / 공자(孔子) 맹자(孟子) 안회(顏回): 소 유 효 유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창 / 이천(伊川): 유 효 성 / 성인(聖人) 능지성인(能知聖人): 임* / 세원인망(世遠人亡) 경잔교이(經殘教弛): 성* / 순경(荀卿): 옥* / 신도방(信都芳): 옥 / 어릉중자(於陵仲子): 성 / 엄백우(冉伯牛): 옥 / 염계(濂溪): 성* / 자공(子貢): 임 조 / 자기(子奇): 유 효*
도학자	남화(南華) 장자(莊子): 유 효 성 임 / 노담(老聃) 태상노군(太上老君): 성 임

〈남성의 외모 재주 성품과 관련된 전고〉

의미	전고의 양상
재주	낭중지추(囊中之錐) 추영(錐穎) 모수(毛遂): 소 임 옥
미남	두목(杜牧): 소, 유 효 유 성 임 현 조 명 이 / 두연(斗衍): 소 쌍 / 반악(潘岳): 소 유 효 유 임 현 조 명 쌍 이 창 / 송옥(宋玉): 소 유 현 조 쌍 이 / 여동빈(呂洞賓): 유 효 성 / 왕자진(王子晉): 유 효 성 임 조 옥 명 이 / 위계(衛玠): 소 현 조 이 / 이백(李白): 소 유 효 유 성 임 현 조 / 주유(周瑜): 소* / 진평(陳平): 소 유 효 유 임 / 하안(何晏): 소 유 임 현 조 명 이
문재	가의(賈誼): 유 성 옥 쌍 / 곽박(郭璞): 성* / 낙빈왕(駱賓王): 옥* / 도연명(陶淵明): 유 성 임 옥 이 / 동방삭(東方朔): 임 명 / 두보(杜甫): 소 조 옥 쌍 이 / 두예(杜預): 소* / 맹호연(孟浩然): 유 효 / 백낙천(白樂天): 옥 / 사마천(司馬遷): 소 성 조 / 소동파(蘇東坡): 유 성 임 옥 / 소순(蘇洵) 소철(蘇轍): 유 / 송옥(宋玉): 소 / 양형(楊炯): 임* / 왕발(王勃): 성 옥 명 쌍 이 / 왕증(王曾): 옥 / 왕포(王褒): 옥 / 위응물(韋應物): 옥* / 유령(劉伶): 옥* / 유신(庾信): 옥 / 위계(衛玠): 소 현 조 / 의마지재(倚馬之才): 임 조 / 이백(李白): 소 유 효 유 성 임 현 조 명 쌍 이 창 / 조식(曹植) 칠보(七步): 소 유 성 임 현 조 명 쌍 이 / 팔두(八斗): 소 유 조 / 한유(韓愈): 조 옥 명 / 혜강(愷康): 옥

필법	사령운(謝靈運): 소* / 사안(謝安): 임 명 창 / 왕우군(王右軍) 왕희지(王羲之): 소 유 임 조 명 쌍 이 / 종요(鍾繇): 소 유 임 조 옥 명 쌍 이
총명	사광(師曠): 유 임 현 조 옥 명 이 창 / 언족이식비(言足以飾非) 지족이거간(智足以拒諫): 성* / 이루(離婁): 임 현 조 옥 명 이
어리석음	미생(尾生): 소 유효 유 임 옥 이 / 부소(扶蘇): 성 / 송양공(宋襄公): 유 조 옥 / 신생(申生): 소 유효 유 성 임 현 명 이 / 신순(申純): 유효 성 쌍 이
활	양유기(養由基) 백보천양(百步穿楊): 소 유 옥 / 이광(李廣) 사호석(射虎石): 유 / 태사자(太史慈): 옥
용력	맹분(孟賁): 성* / 손책(孫策): 소 / 악래(惡來): 소* / 오획(烏獲): 성 옥
성품	좋은 성품 : 유하혜(柳下惠): 유 임 조 옥 명 이 창 / 인약한 성품 : 혜제(惠帝): 소 조 나쁜 성품 : 도적(盜跖): 소 유효 유 성 임 조 옥 명 이 창
악기	진루(秦樓)의 봉소(鳳簫), 소사(蕭史): 소 유 성 임 명 이
의술	편작(扁鵲): 소 유 임 조 창 / 화타(華陀): 소 유 임 조 이 창
부호	석숭(石崇): 임 옥 명 이 창
자객	섭정(聶政): 임 조 명 창 / 예양(豫讓): 유효 명 / 전제(專諸): 소 / 형가(荊軻): 임 조 옥 명 창
역술	소강절(邵康節): 소 유 이 창 / 원천강(袁天綱): 소 임 명 / 이순풍(李淳風): 임
화가	오도현(吳道玄): 소*
친구	관중(管仲) 포숙(鮑叔): 소 유효 유 임 현 조 옥 명 쌍 이 창 / 금란지계(金蘭之契): 유 임 옥 이 도가 같지 않거든 사귀지 말라(道不同 不相爲謀): 조* / 도원삼결(桃園三結): 현 조 / 문경지교(刎頸之交): 옥 쌍 이 / 백아(伯牙) 종자기(鍾子期): 성 유 명 창 / 벗이 멀리서 옴은 성인지락(聖人之樂)이라: 옥* / 사해지내(四海之內) 다 형제(兄弟): 소 임 조 옥 명 창 / 수유백친이나 불여일지기(雖有百親 不如一知己): 성* / 익우(益友): 유효* / 책선봉우(責善朋友): 창

< 행동 규범과 관련된 전고 >

의미	전고의 양상
예의 중요성 바른 행동	거기실(居其室) 출기언선(出其言善) 즉천리지의응지(則千里之外應之): 옥* / 계지경지(戒之敬之) 숙야우귀(夙夜憂懼): 성* / 군자(君子) 낙이불음(樂而不淫) 유이불희(遊而不戲): 임* / 남의 허물을 들으면 어버이 이름을 들은 것과 같이 하여 귀로 들을지언정 입에 올려 말하지 말라(聞人之過失 如聞父母之名 耳可得聞 口不可言也): 유효* / 노(怒)를 천(遷)치 않는 덕(德): 유효* / 덕을 호(好)함(色)함 같이 하는 이를 보지 못하다[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 소* / 무가무불가(無可無不可): 임* / 문질빈빈(文質彬彬): 유효* / 불천노(不遷怒) 불이과(不貳過): 성 / 비례물동(非禮勿動) 비례물시(非禮勿視) 비례물언(非禮勿言) 비례물청(非禮勿聽): 유효 성 조 옥 명 쌍 이 / 사나운 것을 적다하여 하지 말고 어진 것을 적다하여 안 하지 말지니라(漢昭烈 將終 勅後主曰 勿以善小而爲勿 以惡小而爲之): 성* / 사양지심(辭讓之心) 예지단(禮之端): 성 조 명 / 선모이후부(先母而後父) 이적지풍(夷狄之風): 옥* / 성상근야습상원(性相近也習相遠): 성* / 소심익의

	(小心翼翼): 옥* / 언불충신 행불독경 하등인야 괴이부지회 회이부지과 하등인야 문하등지자 해하등지사 비여과방사지중 사면 개장벽야 수욕개명 불기득[言不忠信 行不篤敬 下等人也 過而不知悔 悔而不知改 下等人也 聞下等之語 爲下等之事 譬如坐於房舍之中 四面 皆牆壁也 雖欲開明 不可得矣]: 성* / 언유화(言有和) 즉안자지불천노(則顏子之不遷怒) 점가학(漸加學) 괴이지개(過而知改) 안자지불어과(顏子之不貳過) 점가학(漸加學): 성 / 염자재자(念茲在茲): 옥* / 육척(六尺)의 고(孤)로 백리(百里)의 명: 임 현 / 적선지가(積善之家) 필유여경(必有餘慶) 불선지가(不善之家) 필유여殃(必有餘殃): 성* / 천하유도(天下有道) 여물개창(與物皆昌) 천하무도(天下無道) 수덕취환(修德就聞): 성* / 현신택군(賢臣擇君) 현금택목(賢禽擇木): 임
인내 중요	계손씨(季孫氏): 성* / 소불인즉난대모(小不忍則亂大謨): 소 성 임 조 옥 명 / 시가인애(是可忍也) 숙불가인어(孰不可忍也): 성 임
배움 태도 스승 흠모	나를 가르치는 이는 스승이요[教我者 爲師]: 임 창 / 양지미고(仰之彌高) 찬지미건(鑽之彌堅) 침지재전(瞻之在前) 홀언재후(忽焉在後): 유효* / 조문도석사가의(朝聞道夕死可矣): 유효 / 학이시습(學而時習) 생이지지(生而知之): 명*
개과천선	고침이 귀하다: 유 임 조 옥 창
잘못 인정	부형청죄(負荊請罪): 유 임
은혜 값음	결초함환(結草銜環): 성 임 현 조 옥 쌍 창 / 수후(隋侯)의 구슬: 성 임 현 옥

〈물명 관련된 전고〉

의미	전고의 양상
무거운 술, 보물	구정(九鼎): 소 임 현 조
위기 해결	맹상군(孟嘗君)의 호백구(狐白裘): 유 이
귀중한 것	연성지벽(連城之璧) 화씨벽(和氏璧): 소 유 임 조 옥 명 쌍 이 창 / 위국진주십이승(魏國眞珠十二乘): 현 조 / 위혜왕(魏惠王)의 벽진주: 임
약	환혼향(還魂香): 임*

〈경전 및 문학작품의 기타 전거와 관련된 전고〉

의미	전고의 양상
축문	급급여율영((急急如律令): 임*
천명 정당성	천여불수(天與不受) 반수기양(反受其殃): 소 성 임 현 조 옥 명 쌍 이 창
복수	구천(勾踐) 와신상담(臥薪嘗膽): 유효 성 임 쌍 이 / 조씨(趙氏) 고아: 성*
실행의 부족	언과기실(言過其實): 임*
끝없는 욕심	농축(隴蜀)의 무염지심(無厭之心): 유 임
세월의 빠름	백구과과(白駒過隙): 성 임
자신이 초래한 결과	백인(伯仁)이 유아이사(由我而死): 소 유 현 조 옥 명 쌍 창 / 양호자유환(養虎自

	遺患): 임* / 천작열(天作孽) 유가위(猶可違) 자작열(自作孽) 불가활(不可活): 성, 임 옥
의도치 않은 결과	비감후야(非敢後也) 마부진야(馬不進也): 성*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분수추풍(汾水秋風): 옥 / 생(生)은 기야(寄也)오 사(死)는 귀야(歸也): 유, 조 / 인지장사(人之將死) 기언선(其言善) 조지장사(鳥之將死) 기명애(其鳴哀): 현 조
전쟁에 임하는 태도	선발제인(先發制人) 후발제어인(後發制於人): 성* / 장군(將軍) 유사지심(有死之心) 사졸(士卒) 무생지기(無生之氣): 유효*
진위 파악의 어려움	수지오지자웅(誰知鳥之雌雄): 유효, 현, 조 / 향원(鄉原)이 덕지적(德之賊): 임*
큰 뜻 알기 어려움	연작(燕雀)이 어저 홍곡지심(鴻鵠之心)을 알리오: 유효, 유, 성
우두머리	영위계구(寧爲鷄口) 무위우후(無爲牛後): 성 명
술에 취한 태도	옥산(玉山) 자도(自倒): 유효 유 옥
생각의 중요성	우자천려(愚者千慮) 필유일득(必有一得): 조*
반복 - 현혹당함	증모(曾母)의 투저(投杼): 성 조 명 쌍 / 증삼(曾參)의 살인: 성 임
민첩한 행동	질족자(疾足者): 임 조
만인의 중요성	천정승인(天定勝人)이나 인중역승천(人衆亦勝天): 성*
숨길 수 없음	천지신지(天知神知) 아지자지(我知子知) 하위무지자(何爲無知者): 성 명
고난 역울함	동관지역(潼關之厄) 유리지역(羗里之厄): 유효 성 조 / 수재누설(雖在縲紲) 비기죄야(非其罪也): 유 조 / 진채지역(陳蔡之厄): 유효 성
세로의 험난함	촉도지난난어상청천(蜀道之難難於上青天): 세로의 험난함
장수(長壽)	팽조(彭祖): 임*
서투름 - 결과	화호불성(畫虎不成) 반류구자야(反類徇者也): 성*
큰 일의 중요성	소덕출입(小德出入): 옥
기온의 차가움	오월한풍냉불골(五月寒風, 冷佛骨): 성*
잔치 묘사	침유잠주(檐帷暫駐) 승우여운(勝友如雲) 천리봉영(千里逢迎) 고봉만좌(高朋滿座) 등고기봉(騰蛟起鳳) 맹학사지사종(孟學士之詞宗): 옥*
시의 음영	읍고주지리부(泣孤舟之嫠婦) 무유학지잠교(舞幽壑之潛蛟): 성, 임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문장편소설에는 총 545개의 다양한 전고들이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대개의 전고들은 한 작품에서 독자적으로 쓰이기보다는 2작품 이상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국문장편소설을 향유했던 이들이 이 같은 전고들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한다.

3. 범주와 빈도를 통해 살펴본 국문장편소설의 전고 운용 방식

국문장편소설은 인물에 얽힌 이야기나 경전 및 문학작품의 구절들을 빈번히 서사에 끌어와 전고로 활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고를 서사에 활용함에 있어 국문장편소설은 작품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개별 작품에 사용된 전고의 종류와 수를 통해 국문장편소설이 작품 별로 전고의 운용에 있어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살펴보자.

[국문장편소설 개별 작품의 전체 분량과 등장 전고의 수]

작품	전체 권책 수	사용 전고 수	작품	전체 권책 수	사용 전고 수
소현성록	15권 15책	196	옥원재합기연	21권 21책	190
유효공선행록	12권 12책	99	명주기봉	24권 24책	146
유씨삼대록	20권 20책	158	쌍천기봉	19권 19책	110
성현공숙렬기	25권 25책	189	이씨세대록	26권 26책	121
임씨삼대록	40권 40책	206	창란호연록	13권 13책	76
현몽쌍룡기	18권 18책	137			
조씨삼대록	40권 40책	206			

총 12작품을 대상으로 살펴본 국문장편소설의 전고 사용 양상을 확인해 보면 국문장편소설 안에서도 전고의 사용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임씨삼대록>, <조씨삼대록>, <소현성록>, <옥원재합기연>, <성현공숙렬기>와 같이 200여개 내외의 전고를 사용하고 있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쌍천기봉>, <이씨세대록>은 이들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약 110여개의 전고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창란호연록>의 경우에는 <임씨삼대록>이나 <조씨삼대록>의 36% 정도에 해당하는 76개의 전고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작품 별 추출 전고의 수가 편차를 보이게 되는 이유로 작품의 분량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실상은 작품의 분량은 사용 전고의 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0권 분량의 <임씨삼대록>이나 <조씨삼대록>이 전고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15권 분량의 <소현성록>도 두 작품과 큰 차이 없이 전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작품 별로 전고 사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소설 작가가 지니고 있는 교양이나 지식의 정도 차이로 인해 전고 사용도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전고의 활용이 가장 낮은 <창란호연록>의 경우 추정해볼 수 있다. <창란호연록>은 13권의 서사에서 총 76개의 전고를 활용해 위에서 살핀 국문장편소설 가운데 가장 낮은 전고의 사용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작품은 사용하고 있는 전고의 수도 가장 적을 뿐더러 다른 작품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고의 수도 매우 적다. 여성으로서 문체에 뛰어났던 채문희(蔡文姬)에 관한 일화나 착한 일을 권면하는 것이 친구의 도리임을 설명한 『맹자』의 ‘책선붕우(責善朋友)’ 구절과 같이 다른 작품에서 활용하지 않고 이 작품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전고는 전체 76개의 전고 가운데 4개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창란호연록>은 전고로 끌어오고 있는 지식의 정도도 적을 뿐더러 사용하고 있는 전고 역시 대다수가 여타의 국문장편소설에서 활발히 공유하고 있던 전고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전고의 수가 적게 사용되었기는 하나 독자적인 전고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유효공선행록>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보다 확연히 드러난다. <유효공선행록>도 12권의 서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고가 99개에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활발히 전고를 운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작품은 99개의 전고 가운데 독자적으로 이 작품에서만 활용하

고 있는 전고가 18개에 이르고 있어 <창란호연록>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독자적으로 쓰이고 있는 전고들의 경우에도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설명한 『논어』의 ‘부위자은(父爲子隱) 자위부은(子爲父隱) 귀기중의(貴其中矣)’와 같은 구절이나 예(禮), 의(義), 염(廉), 치(恥)가 펼쳐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뜻을 담은 관자의 말로 『사기』 「관안열전(管晏列傳)」에 실려 있는 ‘사유부장(四維不張) 국내멸망(國乃滅亡)’과 같이 경전이나 역사서의 구절들이 대다수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창란호연록>이 다른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전고를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 작품의 작가의 교양이나 지식수준이 다른 작품의 작가에 비해 차이를 보이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실 <창란호연록>의 경우 서사에서 통속적이고 탈규범적인 세계를 재현하며 가문을 중시하기보다는 애정에 기반한 개인의식으로서의 경사를 보이며 하층 체험을 부각하고 있어 상층의 의식보다는 그 이하의 계층인 여항인(閭巷人)의 의식에 경도되어 있는 작품이라는 논의가 있어왔다.¹⁹⁾ 이는 전고의 활용의 측면에서도 <창란호연록>이 풍부하게 전고를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국문장편소설의 전고 운용에 있어 스펙트럼이 넓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해준다.

다음으로 작품 별로 전고 활용에 있어 편차가 생기는 것은 작가의 교양이나 지식수준의 문제보다는 작가의 관심사를 반영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임씨삼대록>이나 <조씨삼대록>에 비해 활용하고 있는 전고가 그 절반에 미치고 있는 <쌍천기봉>의 경우에는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활용해 작중 등장인물을 구축했을 뿐더러, <명사(明史)>의 사건과 인물들을 적극 작품에 수용하고 있어 작가가 중국

19)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창란호연록〉, 〈옥원재합기연〉,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81~191쪽 참조

역사에 해박한 인물일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다.²⁰⁾ 때문에 이 작품의 작가가 교양이나 지식수준의 부족으로 전고를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작품의 활용 전고의 편차는 작가의 관심사에 일정 정도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전고 운용에 있어 관심사에 따라 사용 전고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전고를 사용하고 있는 서사 내 의미 범주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국문장편소설의 범주 별 전고 수]

범주 ²¹⁾	국문장편소설 전체 전고 수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전고 수	기봉류 국문장편소설 전고 수
여성	104	96	51
혼인 가정	93	84	47
군신 치국	168	128	113
성인	16	14	6
남성	84	73	54
행동규범	36	29	12
물명	5	5	3
기타	39	35	11

위의 표는 국문장편소설에 활용된 전고가 작가의 관심사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전고를 전고의 의미에 따라 범주를 구분해 살펴본 것이다. 위의 표에 따르면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이 기봉류 국문장편소설에 비해 여성, 혼인 및 가정 관련, 성인 및 학자, 행동규

20) 김탁환, 「<쌍천기봉>의 창작방법 연구」, 『관악어문연구』 18, 1993, 178쪽.

21) 이 표에 사용하고 있는 범주는 2장에서 전고의 양상을 개괄했던 사용하였던 범주를 활용한 것이다. 표에 내용을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적어 간략히 대표어로 범주를 소개하였다.

범, 경전이나 문학작품의 기타 전거와 관련된 전고들을 대략 2~3배 많이 운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과 관련된 전고 가운데서 부덕(婦德)과 관련된 세부 범주에 운용되고 있는 전고가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각결(却缺), 갈담(葛覃), 관저(關雎), 규목(楸木), 마등(馬鄧), 번희(樊姬), 봉영집옥(奉盈執玉), 아황(娥皇), 여영(女英), 장손황후(長孫皇后), 주선강후(周宣姜后), 주아(周雅)의 품모, 진희(晉姬), 태강(太康), 태임(太妊), 태사(太姒), 행채(荇菜)’ 등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기봉류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관저(關雎), 규목(楸木), 마등(馬鄧), 번희(樊姬), 아황(娥皇), 여영(女英), 주선강후(周宣姜后), 태임(太妊), 태사(太姒), 환소군(桓少君)’으로 그 절반 정도에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들은 경전이나 문학작품에서 행동규범이나 상황과 관련된 전고들을 한자음 그대로 끌고 오는 경우가 기봉류 국문장편소설에 비해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성현공숙렬기>를 들 수가 있다. 평범한 사람이 영웅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뜻을 지닌 『사기』 「진섭세가」편에 나오는 “연작안감홍곡지지(安感鴻鵠之志)”나, 세월이 오래되어 성인이 가시니 경전도 묻히고 가르침이 느슨해졌다는 의미로 『소학(小學)』에 나오는 “세원인망(世遠人亡) 경잔교이(經殘教弛)”와 같이 경전이나 역사서의 구절들을 끌어와 전고로 빈번히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8권에서는 형 임희린이 동생 임유린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대목에서 “언불충신하며 행불독경이 하등인자며 과이부지회하며 희이부지과이 하등인자야 문하등지자하고 해하등지사하면 비여좌방사지중하여 사면의 개장벽이니 수육개명이나 불가득이라(言不忠信, 下等人也. 行不篤敬, 下等人也. 過而不知悔, 下等人也. 悔而不知改, 下等人也. 聞下等之語, 爲下等之事, 譬如坐於房舍之中, 四面, 皆牆壁也. 雖欲開明,

不可得矣)”²²⁾와 같은 긴 분량의 구절을 대화에 녹여 전고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과 기봉류 국문장편소설 모두 군신이나 치국과 관련된 전고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수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이 다양한 범주와 관련된 전고를 두루 운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기봉류 국문장편소설은 특정 범주와 관련된 전고를 집중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 같은 전고 운용의 차이는 작품 군에 따라서뿐만 아니라 개별 작품 내에서 살펴보아도 확인이 된다.

[개별 국문장편소설 내 범주 별 전고의 수와 비중]

범주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기봉류 국문장편소설					
	소헌성록		임씨삼대록		조씨삼대록		옥원재합기연		명주기봉		쌍천기봉	
	전고수	비율	전고수	비율	전고수	비율	전고수	비율	전고수	비율	전고수	비율
여성	56	29%	48	23%	51	25%	33	17%	31	21%	27	24%
가정	39	20%	39	19%	44	21%	31	16%	19	13%	14	13%
치국	55	28%	50	24%	57	27%	70	37%	57	39%	47	42%
성인	3	2%	7	3%	4	2%	6	3%	3	2%	2	2%
남성	37	19%	34	17%	31	15%	33	17%	26	18%	13	12%
행동	2	1%	11	5%	5	2%	9	5%	4	3%	2	2%
물명	2	1%	4	2%	3	1%	1	1%	1	1%	1	1%
기타	2	1%	13	6%	11	5%	7	4%	5	3%	4	4%
전체	196		206		206		190		146		110	

22) “티위 왈 ……(중략)…… 언불충신호며 흥불독경이 하등인지며 괴이부지회호며 희이 브지래 하등인지아 문하등지즈 호고 흥호등지 사호면 버여 좌방사지 중호여 스면의 개장벽이니 수옥개명이나 불가득이라 호시니 이제 너도 남직오 나도 남직라” <성현 공숙렬기> 8권.

위의 표는 작품군 별 3작품 씩을 대상으로 개별 작품 내에서 전고를 범주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 정도를 살펴본 것이다. 앞서 작품군 별로 전고의 범주를 살펴보았던 표에서는 각각의 작품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고의 수를 합산해 범주 별로 제시한 것이었다면, 이 표에서는 개별 작품에서 사용된 총 전고의 수를 기준으로 각각의 범주에 사용된 전고의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이 전고를 다양한 범주에서 두루 운용하는 것에 비해 기봉류 국문장편소설이 특정 범주에 집중적으로 전고를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현성록>의 경우 여성, 가정, 치국, 남성과 관련된 범주의 전고들이 각각 29%, 20%, 28%, 19% 사용되고 있어 약간의 편차가 있으나 비교적 고르게 범주별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고의 활용이 <임씨삼대록>, <조씨삼대록>, <소현성록> 등에 비해 낮은 <쌍천기봉>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전고 가운데서 유독 군신이나 치국과 관련된 범주의 전고 활용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과 관련된 전고가 24%, 가정과 관련된 전고가 13%임에 반해 군신이나 치국과 관련된 전고가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쌍천기봉>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봉류 국문장편소설인 <옥원재합기연>이나 <명주기봉>에서도 확인이 된다. <옥원재합기연>의 경우 여성이나 가정과 관련된 전고의 비중이 17%, 16%임에 반해 치국과 관련된 전고의 비중이 37%이며, <명주기봉>의 경우 여성이나 가정과 관련된 전고의 비율이 21%, 13%임에 반해 치국과 관련된 전고의 비중이 3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원재합기연>이나 <명주기봉>에 사용되고 있는 전고가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고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이 범주에 따라 전고 운용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이들

작품이 전고를 운용하는 데 있어 특정 범주에 집중적으로 전고를 운용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이처럼 특정 전고를 집중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점은 작품별 개별 전고의 쓰임에서도 확인이 된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소현성록>과 <명주기봉>에 사용된 개별 전고들의 사용 빈도를 들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가문의 번영을 이루어가는 문제를 고심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혼인 및 부부 생활에서 겪는 여러 측면의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서사에서 다루고 있다. 그런데 두 작품에서 여성의 부덕을 드러내는 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태임(太妊), 태사(太嬖)와 관련된 전고나 반대로 여성의 투기나 음란함을 드러내는 데 빈번히 사용되는 여후(呂后)와 관련된 전고들의 사용 빈도는 현저히 차이를 보인다. <소현성록>에서는 태임, 태사 전고가 38번, 여후 전고가 18번 사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명주기봉>에서는 태임, 태사 전고가 8번, 여후 전고가 5번 사용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명주기봉>에서는 주공(周公), 소진(蘇秦), 태공망(太公望), 항우(項羽)와 같이 군신이나 치국과 관련된 전고들이 10회 이상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특정 전고에 집중된 운용 방식은 <창란호연록>에서도 확인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작품은 국문장편소설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전고가 적다. 그런데 유독 ‘관중(管仲), 포숙(鮑叔), 백아(伯牙), 종자기(鍾子期)’ 등과 같이 친구 관계와 관련된 고사들의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난다.²³⁾ 이 작품 역시 작품의 주축이 되는 장부, 한부, 이부

23) “고인이 칙선하는 봉우를 귀타하엿시니 그 말이 울흔죽 썩라 곳치지 아니리오” <창란호연록> 3권, “다시 인아의 정으로 겹겹이 관포의 지괴을 미즈거늘” <창란호연록> 5권; “즈고로 지기지심이 장유 귀천이 업스니 빅이는 작위 상티후요 즈괴는 일기 초부로되 거문고을 타 스투하야스니” <창란호연록> 10권; “관포지의 민멀치 아니러니 말세의 엇지 이러툃흔 스람이 잇는뇨” <창란호연록> 11권.

의 가문의 영달과 그 자녀들의 혼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서사는 자녀들의 혼인과 부부 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런데 실제 운용되고 있는 전고들은 여성의 부덕이나 부부 간의 가정사와 관련된 전고들에 비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교우 관계를 보여주는 전고들이 집중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작품의 작가가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것이 친구 관계, 신의의 문제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작품은 자녀들의 부부 생활을 통해 서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구조는 배은(背恩)과 보은(報恩)의 구조라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작품이 장부와 한부의 가부장인 장우와 한제가 친구관계였다가 한제의 배신으로 인해 자녀들의 혼사가 어그러지는 것에서 시작 해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²⁴⁾ 때문에 이 작품이 교우 관계와 관련된 전고를 집중적으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점은 작품 내에서 이와 관련된 생각을 보다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문장편소설에는 다양한 전고가 활용되고 있는데 그 운용함에 있어 편차를 보이고 있다. 기실 국문장편소설의 주된 내용들이 가문의 영달과 그에 따른 자녀들의 혼인과 부부 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작품 내에서 전고 사용의 편차가 경향성을 띠고 나타나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때문에 이러한 작품 내 전고 운용의 경향성이 전고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확인하게 해 주는 하나의 단초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문장편소설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전고를 작품에 끌어와 자유자

24) 김정녀, 「〈창란호연록〉의 배은-보은 구조와 지향」, 『동양고전연구』 61, 2015, 280~281쪽 참조.

제로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은 전고를 운용함에 있어 다양한 범주의 전고들을 두루두루 끌어오고 있음이 확인이 된다. 게다가 인물과 관련된 전고 이외에도 경전이나 문학작품의 구절을 한자음 그대로 끌어와 서사에 빈번히 끌어오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이 전고를 운용함에 있어 다양한 범주의 지식들을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했음을 알게 한다. 선행연구에서 역사적 인물이나 상황, 담론의 전고를 끌어와 서사 내의 인물과 상황을 구축하고 논리를 보강하며 설득력 있게 만드는 점은 작품 내적 세계에 대해 작품 외적 세계로부터 타당성을 확보해 내고, 역사적으로도 작품 내적 세계의 효용성과 존재 의의를 인정받으려는 작가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소설 텍스트를 지적인 것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²⁵⁾ 이를 염두에 둔다면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은 다방면의 전고를 두루 활용하면서 소설 텍스트를 지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데 기여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소현성록>이나 <조씨삼대록>과 같은 작품이 소설이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 작품 말미에서 황제의 명에 의해서 작품이 지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소설에 일정한 권위를 실어주려고 했던 점²⁶⁾을 상기해보면 전고의 운용 역시도 다양한 지식을 드러내면서 소설 텍스트의 위상을 높이는 일환으로써 두루 활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기봉류 국문장편소설의 경우 특정 범주에 집중해 전고를 운

25)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247쪽.

26) “인종이 소현성의 도덕을 공경하고 스모하사 포종과 녀이간으로써 형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던하라 하시니”, “우리 부조 숙친의 형적이 혹 아름답디 아닌 곳이 이시나 상명으로 두 직상이 지어시니 엇디 감히 싸이리오” <소현성록> 15권; 조씨: “영종이 초공의 형적을 드러보시더니 신종을 주어 보라 하시고 탄복칭선하사 레부상서 정태숙과 부스 조기로써 낭공의 평칭 충효를 작서하시니라” <조씨삼대록> 40권.

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기봉류 국문장편소설이 전고의 역할을 작중 인물이나 상황을 빗대거나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다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 전고를 활용하더라도 주된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해 그와 관련된 전고들을 빈번히 사용하는 것을 통해 관심사를 서사 내내 부각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때문에 가문의 영달이나 자녀들의 부부 생활을 서사에서 초점화해서 다루고 있으면서도 송(宋)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기반으로 지어진 <옥원재합기연>이나 <삼국지연의>와 <명사(明史)>를 활용해 인물과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쌍천기봉>, 교우 관계에 작품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창란호연록>은 다양한 범주의 전고들 가운데서도 군신이나 치국, 교우 관계에 집중된 고사들을 활발히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조선후기 사대부가 여성들의 독서 실태에 관해서는 행장이나 제문에 남겨진 기록들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사대부가 여성들이 『소학』이나 『내훈(內訓)』 그리고 『열녀전』과 같은 수신서를 비롯한 경전과 역사서들을 읽어왔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사 자료들에 남아있는 기록 이외에도 조선후기 사대부가 여성들의 교양이나 지식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해주는 단초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읽었던 소설이다. 사대부가 여성들이 주된 향유층으로 알려진 국문장편소설은 서사에 자유자재로 풍부한 전고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읽는 가운데 독자들은 작품에 실린 전고들과 관련된 지식을 자연스레 익히고 공유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조선후기 국문장편소설의 독자들이 공유하고 있던 소설에 실린 지식의 정도를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2개의 국문장편소설을 대상으로 그에 나타난 전고들을 추출한 결과 총 545개의 전고가 작품 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상당수는 2작품 이상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작품을 향유하던 이들이 공유하고 있던 교양이나 지식으로 가늠해볼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전고의 출전이 된 텍스트들 가운데에는 경전이나 문학작품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작품들에 사용되고 있는 담론이나 구절들이 한자음 그대로 서사에 들어와 인용되고 있어, 국문장편소설을 향유하던 이들이 경전이나 한시(漢詩)나 중국소설 등의 내용들 역시 두루 섭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와 함께 국문장편소설이 다양하게 전고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운용 방식에 있어서는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대적으로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이 가장 풍부한 전고를 두루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반해 기봉류 국문장편소설은 특정 관심사에 집중해 전고를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같은 전고의 운용은 개별 전고를 작품 내에서 활용할 때에도 활용 빈도에서도 편차를 둬으로써 전고 운용을 변별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전고의 범주와 의미에 따라 세부 항목을 나누어 운용 방식을 살펴보았으나 이를 어떤 역할의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까지 아울러 살펴본다면 국문장편소설의 전고 사용의 방식을 보다 세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이를 통해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과 기봉류 국문장편소설의 전고 사용의 차이를 각각의 미감과 연결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글에서 살핀 국문장편소설 이외에도 한문장편소설이나 판소리 계 소설에도 다양한 전고가 두루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 글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각각의 작품군에서 공유하고 있는 전고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본다면 소설 독자층이 공유했던 교양이나 지식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소현성록>·<소씨삼대록> 15권 15책, 이화여대 소장본.
<유효공선행록> 12권 12책,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유씨삼대록> 20권 20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성현공숙널기> 25권 25책,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임씨삼대록> 40권 40책, 장서각 소장본.
<현몽쌍룽기> 18권 18책, 장서각 소장본.
<조씨삼대록> 40권 40책, 서강대 소장본.
<옥원재합기연> 21권 21책,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명주기봉> 24권 24책, 장서각 소장본.
<쌍천기봉> 19권 19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니시세대록> 26권 26책, 장서각 소장본.
<창란호연록> 13권 13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김문희, 「고전소설에 나타난 이비고사(二妃古事)의 변용과 의미」, 『한국고전여성 문학연구』 2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5~40쪽.
- 김문희, 「고전소설의 인물묘사와 독서미감」, 『어문학』 120, 한국어문학회, 2013, 277~307쪽.
- 김문희, 「국문장편소설의 묘사담론 연구」, 『서강인문논총』 28집, 서강대 인문과학 연구소, 2010, 5~41쪽.
- 김문희, 「장편가문소설의 전고(典故)와 독서 역학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201~232쪽.
- 김수연, 「별자리 천문화소 두우성의 서사적 수용 양상과 해석의 문제」, 『시학과 언어학』 27, 시학과 언어학회, 2014, 53~75쪽.
- 김장환, 「『세설신어』의 국내 유전상황과 연구개황」, 『동방학지』 104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9, 355~387쪽.
- 김정녀, 「<창란호연록>의 배은-보은 구조와 지향」, 『동양고전연구』 61, 2015, 255~284쪽.
- 김탁환, 「<쌍천기봉>의 창작방법 연구」, 『관악어문연구』 1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3, 163~190쪽.

- 서경희, 「소약관 고사의 국내 수용 양상과 <소약관직금회문록>의 이본 전승 연구」, 『은지논총』 20, 은지학회, 2008, 109~150쪽.
- 윤세순, 「17세기, 간행본 서사류의 존재양상에 대하여」, 『민족문화사연구』 38, 민족문화사연구소, 2008, 132~159쪽.
- 임치균, 「대장편소설의 수신서적 성격 연구」, 『한국문화연구』 13,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7, 83~111쪽.
- 장시광, 「조선 후기 대하소설과 사대부가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 29, 동양고전연구학회, 2007, 0~0쪽.
-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1~907쪽.
- 지연숙, 「고전소설 공간의 상호텍스트성: 황룡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6,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141~165쪽.
-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328쪽.
- 최수현, 「<유씨삼대록>의 전고 활용 특징과 그 기능」, 『고소설연구』 38집, 한국고소설학회, 2014, 261~295쪽.
-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276쪽.

ABSTRACT

A Study on the Patterns and Management Methods of Authentic
Precedents Appearing in Long Novels in Korean

Choi, Sue-hyu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atterns and management methods of the authentic precedents appearing in long novels in Korean. As already known, long novels in Korean apply a wide variety of authentic precedents into enormous narratives, to an unlimited extent. Given the fact that those authentic precedents utilized are based on contents contained in various areas such as scriptures, history books, moral training textbooks, literary works, etc, it can be considered that investigating authentic precedents means exploring knowledge base shared by those who preferred works of those times.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12 long novels in Korean created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and steadily read until the nineteenth century to understand authentic precedents emerging in works, in a bid to consider how long novels in Korean use and accept authentic precedents in reality. The analytic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545 authentic precedents are utilized in long novels in Korean, and they were quoted from anecdotage, such as 『*Seseolshineo*』, and various poem works in the Chinese Character in addition to scriptures, history books, moral training textbooks presented in the past. Also, it is found that those authentic precedents are contained in more than two works as a whole. This means that those of those times really share knowledge through novels. Also it is identified that long novels in Korean utilizing various authentic precedents show differences in characters of each work. This seems to be derived from the differences in concerns, attitudes and roles of works as to the managements of authentic precedents, and those in knowledge that the author has.

Key Words Long Novels in Korean, The Long Novel in Korean "Samdaerokgye,"
The Long Novel in Korean, "Gibongryu," Authentic Precedents, Ancient Texts,
Managements, Narrative Techniques

논문투고일 : 2017. 1.15
심사완료일 : 2017. 2. 5
게재확정일 : 2017. 2.18